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브리프

2025년 4분기



울산테크노파크
Ulsan Technopark

'25년 4분기 울산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브리프

작성일자	2025.11.25.	문의처	울산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052) 219-8754
------	-------------	-----	------------------------------

※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브리프」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 소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에서 작성·배포합니다.

01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울산

□ (중소기업 밀집지역¹⁾ 현황) 전국 중소기업 밀집지역 2,077개 중 울산 밀집지역은 35개로 1.7%를 차지

- (시군구별) 지역별로는 울주군이 전체 48.6%인 1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구, 남구 순으로 밀집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유형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유형 중 산업단지(77.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8.6%)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전국, 울산) >

(단위 : 개, %)

유형 시군구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역특화 발전특구	기타	합계	비중
전국	103	39	23	995	906	9	2	2,077	100.0
울산	1	3	0	27	4	0	0	35	1.7
중구	0	1	0	0	2	0	0	3	8.6
남구	1	1	0	2	1	0	0	5	14.3
동구	0	0	0	1	0	0	0	1	2.9
북구	0	0	0	8	1	0	0	9	25.7
울주군	0	1	0	16	0	0	0	17	48.6

* 주: 2025년 모니터링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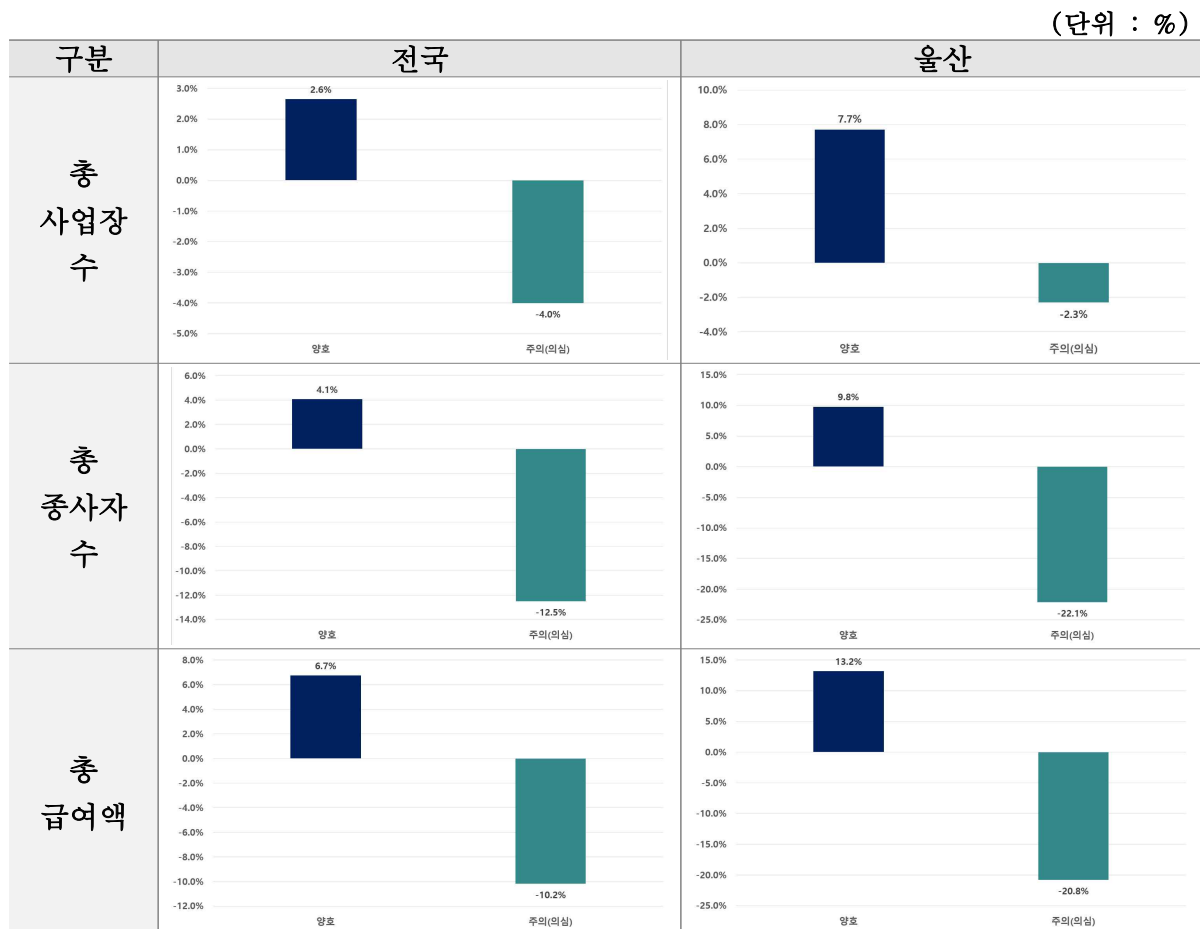
02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표별 현황

울산

□ (전년동기 대비 모니터링²⁾ 결과) 2025년 4분기 기준, 울산 내 35개 밀집지역 중 8개 지역(22.9%)이 ‘주의(의심)’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28.8%)보다 낮은 수준임.

- (총사업장수) 울산광역시 내 양호/주의(의심) 단계 밀집지역의 사업장 수는 전년 동기('24년 4분기) 대비 각각 +7.7% / -2.3%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양호/주의(의심)단계 밀집지역 사업장은 같은 기간 +2.6% / -4.0% 변동을 보여, 울산은 양호단계에서 전국 대비 증가 폭이 컸으며, 주의(의심)단계는 전국 대비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총종사자수) 울산광역시 내 양호/주의(의심) 단계 밀집지역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24년 4분기) 대비 각각 -8.3% / -8.3%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으로는 양호/주의(의심)단계 종사자 수가 각각 +3.6% / +14.7% 변동해, 울산은 양호단계와 주의(의심)단계 모두 전국 대비 더 큰 변동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액) 울산광역시 내 양호/주의(의심) 단계 밀집지역의 총출하액은 전년 동기('24년 4분기) 대비 각각 +7.6% / -8.1%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으로는 양호/주의(의심)단계 총출하액이 각각 +7.2% / -1.4% 변동해, 울산은 양호단계와 주의(의심)단계 모두 전국 대비 더 큰 변동 폭이 나타남.

<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필수지표별 현황(전년동기대비) >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양호, 주의 단계로 구분함

03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현황

울산

□ 울산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위기징후 단계별로 뚜렷한 업종 구조 차이를 보임. 특히 양호단계와 주의(의심)단계 지역 모두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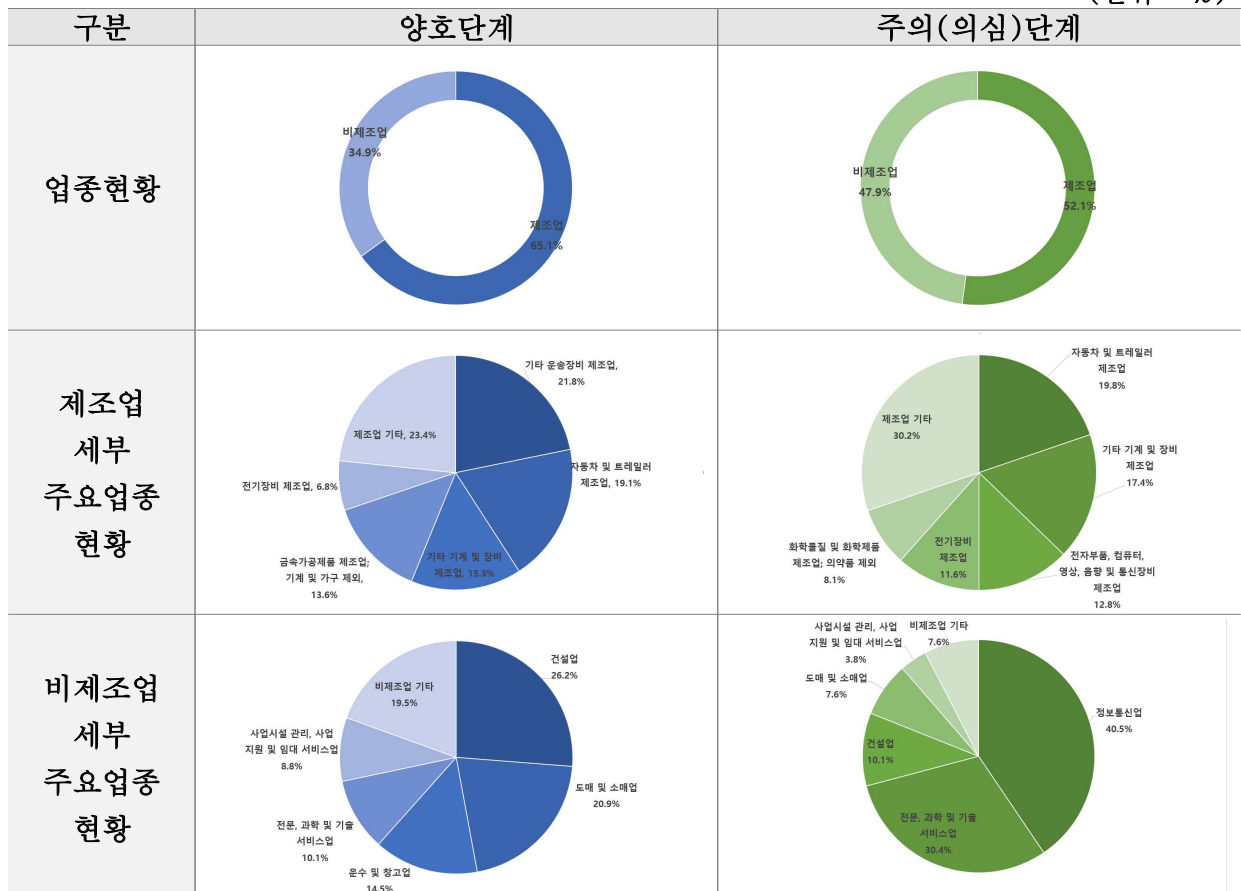
○ (업종 현황) 울산지역 양호단계 밀집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65.1%로, 주의(의심)단계의 52.1%에 비해 높아 제조업 중심 구조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 반면, 비제조업 비중은 양호단계가 34.9%, 주의단계 47.9%로 주의단계에서 비제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구조를 보임.

- (제조업 내 주요 업종) 양호단계 밀집지역에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비중이 높아 운송장비 및 기계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이는 반면, 주의(의심)단계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C26)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며, 특정 업종 편중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구조가 나타남.

- (비제조업 내 주요 업종) 울산지역 양호단계 밀집지역은 도매·소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산업 구조의 균형성과 업종 다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반면, 주의(의심)단계는 정보통신업(J)의 비중이 매우 높고, 건설업·도매·소매업 등이 상대적으로 소수 분포하는 형태로, 특정 업종 편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울산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 업종 현황 >

(단위 : %)



04

종합 및 시사점

울산

□ (밀집지역 주요 특징) 울산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위기징후 단계별로 뚜렷한 업종 구조 차이를 보임. 특히 양호단계와 주의(의심)단계 지역 모두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남.

- (산업) 울산지역 제조업 비중은 양호단계 61.4% 내외, 주의(의심)단계 59~63% 수준으로 두 구역 모두 제조업 의존도가 높음. 양호단계는 자동차·운송장비 중심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의단계는 기타 기계·장비(C29), 자동차(C30) 중심 편중이 유지되어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 낮은 편임. 이로 인해 제조업 내부에서도 일부 업종 쏠림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확인됨.
- (매출) 주의단계는 전체 기업 모수가 작고 5억 원 이하 매출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일부 정보통신업(J) 등 특정 업종 중심의 매출 집중 구조가 강화됨. 반면 양호단계는 업종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음에도, 5억 이하 소규모 매출 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전국 대비 영세성 개선이 미흡함. 이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임에도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줌.
- (고용) 고용 측면에서도 주의단계는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 기반이 취약한 구조임. 양호단계 역시 일정 수준의 소규모 고용 기업이 분포하여,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장 여력과 고용 창출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울산 밀집지역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 역량 강화와 고용 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주요 시사점)

- (밀집지역 분석) 2025년 4분기 위기징후 단계 분류 결과 주의(의심)단계 밀집 지역은 울산비즈파크(중구), 울산와지일반산업단지(울주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울주군), 울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울주군), 울산매곡제2일반산업단지(북구), 울산매곡제3일반산업단지(북구),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남구), 울산벤처빌딩(남구) 총 8곳

시군구	밀집지역명	위기징후 분류지표	사업장수	종사자수	총급여
중구	울산비즈파크	3	○	○	○
울주군	울산와지일반산업단지	2	X	○	○
울주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X	○	○
울주군	울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X	○	○
북구	울산매곡제2일반산업단지	3	○	○	○
북구	울산매곡제3일반산업단지	2	X	○	○
남구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3	○	○	○
남구	울산벤처빌딩	3	○	○	○